



교단 제67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1일(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롬 12:2)라는 주제로 아래 안양시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더욱 헌신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좌측 아래 원내 사진은 신임 총회장 임용재 목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예하성 ‘제67차 정기총회’

“성경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라”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반대 총회원 ‘한 마음’ ...바른 복음전파 앞장



신임 총회장 임용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1일(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롬 12:2)라는 주제로 열려 국가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 안보와 해폐기,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아이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등록접수를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 앞서 CTS 기독교TV 황우중 경영본부장의 축사와 총회장 김영진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총무 임기철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총회원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여 주셔서 막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으며, 지난 일 년 동안 함께해 주고 또 기도도 후원해 주신 회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 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이창재 목사(중경총회장), 강태진 목사(현회위원장), 한순남 목사(여교역자국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회장 김영진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김영진 목사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임용재 목사와 총무 임기철 목사, 서기처흥식 목사, 재무 탁정신 목사, 회계 윤병하 목사는 총회장 김영진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김영진, 김정수, 이강자, 진영갑, 박성근, 이미순, 백영자, 정복래, 노부철, 양

한자 목사 등 10명이 받았으며 전국사모연합회장 한정근 사모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날 교단 회계 윤병하 목사의 한글기도, 장로성가단의 찬양, 교단 서기 처흥식 목사의 광고, 교단 중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회원은 기념촬영을 하고 곧바로 사무총회로 모여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교사위원장 김인규 목사) 합격자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으며, 66차 총회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등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교단통합 이후 10주년을 맞으며 행정구역별 지방회 통합 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평가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교단대통합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아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성지침금지침 추진 저지와 종교인괴세에 대한 바른 대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반대 등과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신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며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신임 총회장 임용재 목사 주제로 계속된 총회는 67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회 관련 건 등을 결의하고 제67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67차 교단 총회에서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10주년을 맞으며 행정구역별 지방회 통합 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평가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교단대통합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아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성지침금지침 추진 저지와 종교인괴세에 대한 바른 대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반대 등과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신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며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공로패 - 총회장 김영진 목사



공로패 - 부총회장 임용재 목사



공로패 - 총무 임기철 목사



공로패 - 서기 처흥식 목사



공로패 - 재무 탁정신 목사



공로패 - 회계 윤병하 목사

새로운 한 회기 꿈과 비전으로 사명 감당

목대원 계절학기 등 점검
제67차 총회 1회 임원회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 선언에 이어 총무 신재영 목사는 총무보고에서 67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된 내용과 제7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 등 각종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 현황,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토의 및 안건 결의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

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임 청원, 교회주소변경, 교회명칭변경보고, 교역자 휴직 청원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제67차 총회장 임용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 총회 목대원 2018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각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 등의 각종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18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8년 7월 2일(월) ~ 5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8년 6월 29일(금) 17:00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한기총-(주)써미츠, 업무협약

기독교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 (주)써미츠(Summitz, 이수호 대표)가 지난 5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와 '기독교 기반 사회공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기총 산하 교단 및 교육기관, 선교단체 등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회보안솔루션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양자가 적극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기총과 (주)써미츠는 △블록체인 활용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기총 이하 교단 및 교회시설에 대한 보안솔루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 복지 선교 확산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협력하



며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그동안 산발적,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독교 기반 학술자료, 선교관련 자료(지식, 사진, 역사, 고증, 문헌정보)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집대성,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기점으로 기독교적 결집력을 강화, 한기총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를 빅데이터에 통

합하여 선교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이 조성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선교 네트워크를 포함한 한국기독교의 인적 자산 및 그들의 전문성, 달란트, 사회적 영향력 등의 모든 요소들이 사회에 봉사, 나눔, 기부 등의 형태로 사회에 기여했을 때,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영풍회, “복음화 위해 최선 다해 섬길 것”

제25기 부흥사연수원, 피종진·이선·박철수 등 강연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성권상 목사) 제25기 부흥사연수원(연수원장 강홍규 목사) 연수가 지난 5월 10일, 세종 평화의동산에서 열렸다.

이번 제25기 연수는 제35회기 영풍회에 가입한 12명의 신입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중경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여해 신입회원들을 격려했다.

연수는 연수원장 강홍규 목사의 인도와

대표회장 성권상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 위원장 이광호 목사의 기도, 찬양시역자 나경화 선교사의 특송에 이어 중경회장 이선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선목사는 ‘부흥사다운 부흥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이끌어 가는 영풍회가 연수원 개강을 통해 더욱더 영성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부흥사라는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성권상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목회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의 한국교회 영적 리더십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국교회의 영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우리 부흥사들이 기도해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원장 강홍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을 이끌고 계시며, 1907년 평양, 원산에 일어났던 부흥도 한국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타난 역사로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이루는 목회자로 한국기독교영풍회 부흥사 연수원은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제로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기도회 개최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5월 24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5가 한경직 목사 기념의 집에서 정기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란 공동기도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무총장 김광미 목사의 사회로 이사 설상분 목사의 기도, 상임회장 이금자 목사의 성경봉독, 성악가 정미리아 사모의 특송,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마 12:24-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어디에 있는가’라는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함입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



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총괄본부장 김승희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총재교본 전석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된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최은유 목사의 인도로 앞으로 있을 복미 회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함께 기도한 후, ‘이 민족 모든 민족에게 은혜 주심을 위하여 부흥해 최연복 목사가, ‘세계 선교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소서’ 김준성 전도사가,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를 위하여’ 상임회장 마진영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지구촌예수선교협회 5월 월례기도회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



(사)지구촌예수선교협회(이사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5월 17일(목) 오전11시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소재 비전성음교회(담임 한학균 목사)에서 월례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본부장 조병우 목사의 사회로 권용중 목사의 기도, 김요원 목사의 성경봉독, 김수아 목사·뉴원 드선교단·장신회 목사의 특송, 피종진 목사

(대표교본)의 찬상 6:12-15절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요한 목사의 한글송, 유태인 목사의 한글기도, 한학균 목사(비전성음교회), 협회교본의 환영인사로 마쳤다. 계속된 2부 기도회는 강영준 목사(이사장)의 사회로 우슬초 목사·조혜성 선교사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으며, ‘나라와 민족, 남북통일을 위해’, ‘지구촌에 수선교회를 위해’, ‘지구촌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본 선교협회 회원교회 부흥을 위해’, ‘지선현 주회, 연합집회와 목사들의 건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후 사무총장 김영진 목사의 광고, 장대환 목사(본회 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몽골기도회

세기총 주최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5월 16일(수) 오후 7시,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 예배실(법인 회장 김동근 장로)에서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북정상회담 후 후속조치의 이행과 북미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몽골 2018비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빛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750만 재외동포를 위하여 뜻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제1부 예배는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몽골복음주의협의회 비양주르흐구 나이단 목사의 대표기도, 세기총 중경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죽어야 하나 됩니까’ (요 12:24-26)라는 제하의 설교와 세기총 공동회장 하효현 목사의 특별찬송, 세기총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의 ‘우리는 무엇을 고만해야 하는가?’ (창 32:6-12)라는 제하의 설교가 있는 후 몽골복음주의협의회 지역

회장 인코바트르의 한금기도, 세기총 상임회장 최낙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특별순서는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내빈소개,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대회사, 준비위원장인 세기총 상임회장 김동근 장로의 환영사 및 취지 설명,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 유미정 선교사의 특별기도회 인도, 몽골복음주의협의회 비양주르흐구 대표 보이만 목사와 장발드령 목사가 축사를 했다.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준비위

원장 김동근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몽골 현지, 생명의 말씀교회(장진남 목사) 등 11개 교회에 감대상을 전달한 후 동원의 노래를 다같이 부르면서 기도회를 마쳤다.

정서영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몽골(울란바토르)기도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몽골기독교총연합선교회 법인회장 김동근 장로, 기도회에 함께 동행한 세기총 임원, 그리고 몽골복음주의협의회 비양주르흐구 보이만 목사를 비롯하여 몽골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97회 정기총회 개최

성결교회 선교 112 연차대회도 함께 가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성결교회 선교 112 연차대회 및 제97회 정기총회’가 ‘가서 제자 삼으라’ (마 28:19-20)는 주제로 예수 산하 전국지방회에서 참석한 총회 대의원들과 대의원, 교계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인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 기념관에서 거행했다.



생명나눔으로 그리스도 사랑 실천

3개 교회 성도 404명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생명나눔예배가 지난 5월 6일 전국 3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부전에 위치한 복된교회(담임 목사 박만호)에서는 교회장터 43주년을 기념하여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복된교회는 본부의 최은식 목사를 초청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만호 담임목사는 “산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의 ‘뭇 물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비침다’라는 가사처럼 주님께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라며 성도들에게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복된교회 성도 중 총 211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이날, 충북 음성에 위치한 충청중앙교회(담임 목사 김효태)에서도 1, 2부 예배에 황성현 지부장을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충청중앙교회는 설립 112주년 기념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함께 생명나눔예배를 진행했다.

김효태 담임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며 ‘예수

님 낭독, 선교 메시지 선포, 합심기도와 안수기도, 축도 순으로 순서가 진행됐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찬양, 경건회, 회부처리,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하여 이번 연차대회와 총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는 윤기순 목사(예 96회기 총회장 직무대행)가 ‘가서 제자 삼으라’ (마 28:19-20)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저녁 선교대회에서는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가 참석한 선교사들과 대의원 및 대의원들에게 선교 메시지를 선포했다.

또 셋째 날 폐회예배에서는 윤기순 목사(총회장)가 ‘내 양을 먹이라’ (요 21:1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총회 마지막 날에는 금년 97회기에 목사안수를 받는 51명의 안수 대상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CTS제주방송 ‘개국7주년 감사예배’ 드려

제주와 함께한 은혜와 감동, 성장과 도약의 7년

CTS제주방송(이사장 오동환)은 지난 5월 17일(목) 제주시 이라동 제주성안교회(담임 류정길 목사) 이기풍기념관에서 제주방송 운영이사회와 위원, 지역교계 목회자 및 후원자, CTS호남본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TS제주방송 개국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1부 만찬 2부 감사 예배와 3부 운영이사 위촉 및 사업보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CTS제주방송 운영이사 김희식 목사(제주총신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제주시기독교연합회장 박종호 목사(제주중앙교회)의 기도, 운영이사 전향주 장로(제주성안교회)의 성경봉독, 이사장 오공익

목사(제주중본교회)의 설교, 앤젤보이스중창단(제주성안교회)의 특별찬양,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신관식 목사(협한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시 103: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CTS제주방송 오공익 이사장은 “순수복음만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복음적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CTS제주방송이 길이 없는 황폐한 이 시대에,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CTS제주방송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곳 제주에서 제주교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로 권사 및 베트남 선교 파송목사 임직예배

김포지방회

김포지방회(회장 경창호 목사)는 지난 5월 13일(주일) 오후 3시 서암순복음교회에서



장로 권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및 베트남 선교 파송목사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근수 목사(우리순복음교회 담임)의 사회로 서기 주재훈 목사(주전양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지

방회장 경창호 목사(미송순복음교회 담임)의 요 3:28-3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식에서는 조병관 장로, 이경자 최봉순 권귀례 권사, 박영길 이영식 명예장로, 박막내 이재순 명예권사, 김포지방회 베트남선교사 오종임 파송목사에 대한 임직자 소개를 하였다. 이어서 경창호 목사 집례로 서약, 경창호 이덕재 이근수 이독상 최병욱 주재훈 안수위원의 안수기도와 증경회장 이덕재 목사(서암순복음교회 담임)의 공포 후 임직패를 수여했다.

3부 순서는 감사와 축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독상 목사가 장로, 권사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증경회장 최병욱 목사(푸른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이덕재 목사(나눔교회)의 권면 및 축사, 위임찬양선교단의 축가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목사 안수예배, 순종하는 목회 다짐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5월 22일(화) 오전 11시 해마루대광교회에서 목사 안수 예배를 드리고 인내와 충심으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고 근심하 사역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오세준 목사의 성경봉독, 박용진 전도사, 이상숙 전도사의 특송, 로렌선교단의 특송,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의 요 1:1, 12:5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명령의 수평지'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예배는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안수위원장)의 집례로 임직 대상자를 호명하고 안수위원의 목사 안수, 성의 작의, 악수례 순으로 이어졌으며, 안수위원장의 공포와 안

수례증서수여 후 노준의 목사(천성교회 원로), 증경회장 김장수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권면, 우광덕 목사의 광고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천희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 드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5월 26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오산시 은어울로43번길 14 제상가동 202호에 위치한 주본향교회에서 한천희 목사(주본향교회 담임)의 목사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사회로, 찬송인도로 서경오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 대표기도에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 성경봉독에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신행제일교회),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눅14:25-34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련은 이겨야 하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참여한 회원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2부는 신동숙 목사의 진행으로 임직식을 가졌으며 안수위원장에 신동숙 목사 이하 안수위원으로는 이규호 목사, 김기인 목사, 정



석현 목사, 최병일 목사, 김남수 목사가 수고하였다. 서약식, 성의작의, 안수, 악수례, 공포, 임직패수여 등의 순서로 임직식을 은혜롭게 가진 후 3부 순서에서는 권면과 축사의 시간을 가졌다.

권면에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영광교회), 축사에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벤엘교회)가 한 목사에게 축하와 함께 목회자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부회장 정미자 목사(센교회)의 헌금기도, 증

경회장 이규호 목사(동산교회)의 축도로 임직예배 및 임직식을 모두 마쳤다.

이날 한천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수고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회원 및 가족 성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본향교회에서 준비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참여한 회원들과 성도들은 오찬을 나누며, 축복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며 모든 순서를 은혜기운에 마쳤다.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5월 14일(월) 오전 11시 아멘순복음교회(담임 오병용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오

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가 설교했다.

오 목사는 살전 5:21-22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것을 취하지'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된 사역을 감당하려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접하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 악한 것, 틀린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이고, 어떤 것

이 나쁜 것, 악한 것, 틀린 것인지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시험하여 잘 선택해야 한다."라며 "하찮은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찮은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하고,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해야 하며,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수 목사(엘림교회)의 헌금기도 후, 지난 2년 동안 지방회장으로 수고한 직전 회장 최동순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이동수 목사(한희 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진행으로 재무 조재호 목사, 회계 민병훈 목사 보고와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신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 김정수 목사의 기도도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정소를 옮겨 아멘 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기점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기운에 모두 마쳤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자 다짐

총회 직속

직지를 축복했다.

이러진 안수식에서는 서약, 안수, 작의, 악수례, 공포, 임직증서 수여 등의 순서를 안수

위원장 총회장 임웅재 목사와 안수위원인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가 함께 했다.



임회원 춘계단합대회 갖고 바른 목회 다짐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5



월 10일(목)~11일(금), 1박 2일간 강진지역을 여행하며, 임회원 춘계단합대회를 가졌다. 첫날은 무안에 소재한 (주)에릭스도자기를 견학하고, 강진에 소재한 시인 김영광의

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관람했다.

저녁예배에서 지방회 증경회장 엄기설 목사(교단 부총회장)는 눅 19:1-10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착개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시모하여 달려가고 올라가며,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될 것을 결단하자"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둘째날 아침에는 정운기 목사(대전기독교교연합 이단상담소장)가 이단특강에서 약 5:19-20 말씀을 통해 "이단을 바로 알고 배척함과 동시에 그들을 전도대상자로 품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 수국농장과 장흥펜션나무숲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시간을 가졌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정기총회 성료

본 교단 제67차 총회에서 당선된 신 임원진

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총무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서기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재무



이은승 목사
은혜와승리교회

회계



조병희 목사
가장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생명의 말씀 ■



김종열 목사

· 서울강남지방회 중경회장
· 참사랑교회 담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되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 흉년이 들 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므로 창 15:13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창 15:13)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민족 200여 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단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건너에 보이는 모압에서 임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맞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네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5-6)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가 30리 거리에 있는 싯딤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을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1)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십니다.(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수 3:7)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이스라엘도 알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듣고 있

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용기를 주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위협을 하지는 의도입니다. 본문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만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림의 떡 같은 곳입니다

장마로 인해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그 강을 건너게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홍수 중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권위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가졌고 가나안 족속은 발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 강성한 일곱 족속들도 능히 물리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웁니다.(수 3:8-9)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수 3:8-9)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물이 범람하여 아무도 건널 수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수 3:7-10)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는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은 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목전에서 물을 끊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권위를 주기 위함이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수 3: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수 3:10)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밟을 때 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능히 원주민 일곱 족속도 물리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부리를 따라 가다가 물이 왜 끊어졌는지 모르고 강을 건

너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강물 중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물으로 올라오자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시므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타파하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므로 생축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못할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교회부흥에 갈급하여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부흥은 하나님도 바라시는 바며 모든 교회가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부흥을 목표로 세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중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가득하고 나는 없는 것과는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어라”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있는 강단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 없어 머뭇거리고 떠나갔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지 어찌 사지(死地)를 넘여온 이들과 교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던 말인가? 민변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 한다면 남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

전부원권이 어찌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송하랴니? 빈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구별해야 하며, 강도 만난 자를 강도에게 다시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흥밋거리나 또는 말장난처럼, 탈북자 문제를 다루서는 안 된다. 함부로 탈북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돌팔매질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창 4:10)

지 어찌 사지(死地)를 넘여온 이들과 교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던 말인가? 민변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 한다면 남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

전부원권이 어찌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송하랴니? 빈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구별해야 하며, 강도 만난 자를 강도에게 다시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흥밋거리나 또는 말장난처럼, 탈북자 문제를 다루서는 안 된다. 함부로 탈북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돌팔매질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창 4:10)

지 어찌 사지(死地)를 넘여온 이들과 교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던 말인가? 민변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 한다면 남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

전부원권이 어찌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송하랴니? 빈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구별해야 하며, 강도 만난 자를 강도에게 다시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흥밋거리나 또는 말장난처럼, 탈북자 문제를 다루서는 안 된다. 함부로 탈북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돌팔매질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창 4:10)

지 어찌 사지(死地)를 넘여온 이들과 교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던 말인가? 민변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 한다면 남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

전부원권이 어찌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송하랴니? 빈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구별해야 하며, 강도 만난 자를 강도에게 다시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들도 흥밋거리나 또는 말장난처럼, 탈북자 문제를 다루서는 안 된다. 함부로 탈북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돌팔매질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창 4:10)

동 정

바다주일 해양선교대회



한국선원선교회(대표 최원종 목사)와 부산영락교회(윤성진 목사)는 지난 5월 27일(주일) 오후 3시 부산 서구 대청로 영락교회에서 ‘2018 바다주일 해양선교대회’를 개최했다. ‘바다의 날’은 해양수산부가 1996년 제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해양업 종사자를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세계구세군 대장에 브라이언 패들



세계구세군 제21대 대장으로 브라이언 패들 사관이 선출되었다. 국제본부 사관들과 세계 각국 사령관, 여성사역 총재 등 108명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 구세군국제본부에서 세계구세군 대장 선출을 위한 구세군 최고회의를 진행, 브라이언 패들 사관이 21대 대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문수후보, 서울광장 쿠퍼축제 반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지난 5월 24일(목)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상에 쿠퍼축제는 서울시 광장조례에도 어긋나기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광장사용조례를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건전한 광장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포항기연, 지진피해교회에 성금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조근식 목사)는 지난 5월 23일(수) 포항동부교회에서 지진피해교회 위로 기도회 및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포항기연은 이날 정오 포항동부교회 4층 프라미스홀에서 포항 지진피해를 입은 12개 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해 위로기도회를 진행한데 이어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금 1억3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인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10일 모 방송에서는 2년 전에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 13명의 탈북자들에 대하여, 국정원이 주도하여 ‘기획탈북’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종업원 13명이 한국에 들어왔고 정부에서는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편 방송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나서 정부 쪽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고 보도가 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서명을 독려하는 것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지난 달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한번 만난 후 달라진 모습치고는 너무나 몰인정하고 냉정하여 참으로 아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70여 년을 분단된 채로 살았고 수많은 도발과 핵 위협을 했던 핵심 인물을 한번 만난 것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등대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럽기까지 하다.

‘지옥’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는가? ‘악마’가 갑자기 ‘천사’라고 되었다는 것인가? 북한 체제는 아무 것도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이 다지도 들떠 있는 것인가?

거기에 편승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체제에 적응하려고 조용히 애쓰고 있

는 사람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어찌 ‘기획 탈북자’로 간주하여 북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 체제를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즉, 보통의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들에 대한 북송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을 사지(死地)로 내몰려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행으로 규정한다.

이들의 탈북 사건이 났을 때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거로 인권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물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거로 인권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물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거로 인권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물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거로 인권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물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거로 인권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물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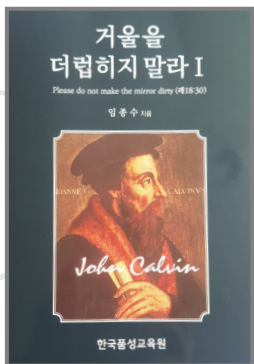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거로 인권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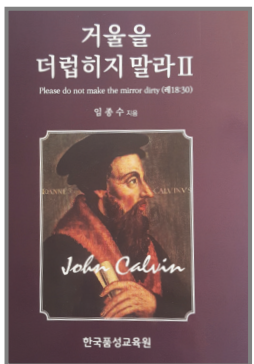
현재 우리와 함께 32,000명의 탈북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현재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몰인정하고 물상식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현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서는 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 되자 친북인사들이 북에서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위임장을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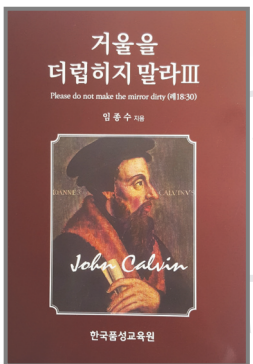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 속이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결사반대한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할 때에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다.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은 변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두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과계산을 인정하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성결혼만을 인정한다. 현행 헌법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와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의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 따라서 젠더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의 성과계는 물론, 다자성에, 수간 등을 합법화하게 만든다.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되게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여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현행 헌법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기반을 둔 양성평등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은 2017년 국회개헌특위 논의 가운데, 현행헌법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기억한다. 광주 금남로에는 2만 명이 모였고, 대전에서는 3만 명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국 11개 지역 개헌국민대토론회장에서 분노에 찬 국민들의 음성을 들었는가?

전국에서 일어난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음모는 좌절되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밝혀졌고 성평등 개헌도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 대신에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며,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개적인 도발 행위이다. 이런 위험적인

고 위험적인 정책과 작태는 국민들의 강력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성평등은 거짓 사상이면서 나쁜 사상이다.

성평등은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람의 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생들도 다 아는 과학적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몸이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 사람의 성이 결정된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성평등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실제의 성은 여성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는 완전히 거짓된 사상이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미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 그러면, 마약과 흡연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인권침해인가?

성평등은 지금의 사회 체제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성 혁명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거짓말이다.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아주 나쁜 사상이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성평등 사상은 거짓 사상이며, 나쁜 사상이며,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체제 사상이며, 반사회적 사상이다.

성평등은 거짓 선전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 속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2017년 12월 18일에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 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향해 ‘양성평등 정책 대신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드러난 것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평등을 통해 성소수자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평등의 목적은 성소수자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평등 사회가 되면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성 파트너를 빼앗아 간다고 뽀록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이 깨어졌을 때 일차적인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그러나 성평등을 주장하

는 사람들은 여성들을 향해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차별 없이 살 수 있다고 속이고 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동성애자와 여성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하지만, 성이 해체되었을 때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동성애는 물론 집단 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다부다처의 무너지는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와 미투운동을 빙자하여 여성들을 앞세우고 있다.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그들의 거짓 선전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

성평등 정책은 현 정부의 20대 전략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 정부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정부가 당장 비윤리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첫째, 정부는 헌법 이념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씩이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정부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셋째, 정부는 여성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들의 폭넓은 진출을 지원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20대 전략과제로 시행하려는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바꾸어 시행하라.

넷째, 미투를 빌미로 성평등을 옹호하는 각종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다섯째, 정부는 건전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사회적 관습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하라.

여섯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미래가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고,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정을 살리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라.

일곱째,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부처라면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에서 Gender Equality라는 표현을 빼고, 여성이 포함된 이름으로 바꾸어라.

2018. 5. 24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목양초점
기독교문화

이효상 목사 //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원장

기독교문화로 신(新) 르네상스시대 열자

한국교회는 구한말 한국사회의 교육과 의료시설을 통하여 근대화의 문을 열었다. 105인 사건과 3·1 운동, 신간회운동, 신사참배반대운동, 독립신문 등 모든 중심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스코랜틴 등 선교사들과 남강 이승훈 선생과 월남 이상재 선생,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등 선각자들이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일어섰기에 해방과 독립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한국근대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는 근현대 문화를 꽃 피웠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전혀 상관도 없는 미개한 땅에 건너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이 죽어간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일구어 놓은 꽃씨를 다시 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근현대사의 콘텐츠를 발전시켜 다음세대에게 전승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세대를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한국교회에 시급한 것은 한국교회가 선조한 근대 문화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자료들을 발굴 연구하여 다시 콘텐츠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하는 일이다.

다음세대를 향한 역사계승은 저절로 고난의 현장을 방불하여 고난의 역사를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직면해야 고난의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 고통 속에 한국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을 다음에 세기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찾게 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당위성을 스스로 갖게 한다. 더 나아가 민족의 자긍심과 고난의 역사관 그리고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빛진 자의 마음으로 나라와 복음전파에 큰 비전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근대 역사와 문화 전통, 정말 시급하다. 그런데 현실은 근대문화에 대한 교회나 목회자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교회학교가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폭풍전야와 같은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조망하고 문화의 신(新) 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국교회 전체가 지혜와 힘을 모아 잊혀진 역사와 문화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는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방인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니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N세대와 함께하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의 신(新) 르네상스를 여는 일, 늦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교회성장에 주력하며 세상의 흐름에 대해 비판할 줄 알았지 역사를 바로잡고 문화를 회복하는 일

에는 소홀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교회 속에는 잃어버린 소금의 ‘짠맛’을 되찾게 해줄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 그 불씨이자 대안으로 ‘문학의 밤’을 재현하고, 세대를 통틀어 ‘성탄축제’를 지역별로 활성화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날 매년 가을이면 교회마다 열린 ‘문학의 밤’은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기독교적 신앙심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학의 밤’은 일종의 기독교 문화를 선보이는 장이었고, 다음세대가 자리할 ‘밤식’을 깔아주는 일이었다. 매년 가을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가졌던 그 소중한 행사가 언제부터가 점점 사라져 찾기 쉽지 않을 정도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졌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낭송하며 그들이 가진 문화적 감수성을 열고 재능, 소질, 은사 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가끔은 이런 꿈을 꾸고 황상을 가져보면 안되는 것일까? 크리스천 청소년들, 즉 젊은이들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신촌과 홍대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음세대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꿈과 환상 말이다. 그런 점에서 홍대 합정역에서 기독교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은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꽃 피우려는 운동으로 1년에 카페 90%가 문 닫는 상황에서 생존하며 지립한 여섯 걸음교회는 미션넬 처치(missional church)와 함께 생소한 상황에서 플랫폼처럼 문화나 콘텐츠를 수용하고 답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써 기독교 가치와 문화가 교회를 넘어 사회와 소통하며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다.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기독교 문화의 신(新) 르네상스시대를 열자. N세대와 홍대 기독교문화의 르네상스 재현, 절교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되새김하며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 ‘문학의 밤’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다. 역사나 문화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다. 민족정신을 깨우친 정인보 선생은 ‘조선사연구’에서 그것을 ‘열’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태어났다면 마땅히 역사를 알고 선조들의 빛난 열을 되살리고 본받아 할 것이 없으면 ‘열’ 빠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뜨거운 피와 그 정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계승하고 전통시켜 나가는 것은 열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요,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길이다.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신임 총회장 임웅재 목사에게 축하꽃다발 전달



신·구 총회장의 뜨거운 포옹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롬 12:2)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롬 12:2)라는 주제로 열려 국가 정세의 위기 속에 나라와 민족의 튼튼한 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의 바른 성장

을 위해,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67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 ...

〈편집자 주〉



임원배석



기록서기



목사안수 인준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신 임원진



신·구 임원진



전국지방회장 실행위원 인준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설교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인사말
신임총회장 임용재 목사인사말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축사
황우중 CTS 경영본부장축도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총회임원 선출
신관위원장 김인찬 목사사회
총무 엄기설 목사성경봉독
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특별기도1
증경총회장 이장재 목사특별기도2
한법위원장 강태진 목사특별기도3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광고
서기 차홍식 목사헌금기도
회계 윤병하 목사감사 보고
김병목 목사예산 보고
김윤영 목사고시위원회 보고
이석호 목사

근속패 및 감사패



30년 근속패 - 김양인 목사



30년 근속패 - 김정수 목사



30년 근속패 - 이강자 목사



30년 근속패 - 진영갑 목사



30년 근속패 - 박성근 목사



30년 근속패 - 이미순 목사



30년 근속패 - 백영자 목사



30년 근속패 - 정복례 목사



30년 근속패 - 노부철 목사



30년 근속 - 양항자 목사



감사패 - 한정은 사모



발언대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CTS 가스펠 경연대회, 대상 '유소망'

CTS 가스펠 경연대회 최종 본선 개최

CTS기독교TV가 주최하고 드림업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가스펠 싱어를 뽑기 위한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 마지막 본선 무대가 열렸다.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 최종 본선이 지난 5월 19일(토) 오후 3시 CTS기독교TV 본사 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본선까지 올라온 14개 팀이 2시간 동안 펼친 경쟁에서 최종 수상자가 정해졌다.

그동안 1차 70개 팀 중에서 2차 예선 오디션을 거쳐 70개 팀, 3차 예선을 거쳐 최종 30팀을 선발했고, 마지막 멘토링 캠프에서 최종 14개 팀이 선발됐다.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무대에 오른 팀은 이승은, 드림 가스펠 박밴드, 지브로, 사랑관밴드, 방음화, 제이홀릭, N:sow, LUTH밴드, 소울과이프, 유소망, 이강호, 에클레시아, SWAY, 김미소 총 14개 팀이다.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의 최종 14팀 중에서 대상에 유소망, 금상 N:sow, 은상 김미소, 동상 지브로, CTS PD상 SWAY, 특별상 제이홀릭 등이 각각 수상을 했다.

이들 시상에는 대상은 상금 1,500만원과 상패와

부상, 금상은 500만원과 상패와 부상, 은상은 300만원과 상패와 부상, 동상은 200만원과 상패와 부상, 입상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서울 예선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다섯 번의 예선을 거쳐 최종 14개 팀이 선정되어 본선 무대에 올라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CTS기독교TV 고정원 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경연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찬양예배였다. 김명현 목사님을 만나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행사를 함께 기획하게 되었다. 앞으로 CTS도 더욱더 협력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교 미디어 공간 안에서 또한 세상 미디어 공간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월드뷰티핸즈 마포돌봄센터서 어르신 섬김

'가장 아름답고 멋진 희망을 담아서' 주제로 뷰티 서비스 제공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장한일, 회장 최에스티)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센터장 박도식)와 함께 어르신 섬김 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9일(토) 가장 아름답고 멋진 희망을 담아서'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마포구 관내 소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 네일, 손관리 등 뷰티 서비스를

를 지원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장한일 이사장은 "K-뷰티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의 혁신적인 섬김과 사랑으로 뷰티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삶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도록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번 뷰티서비스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뷰티서비스에는 한성대 뷰티디자인학과 권오혁 교수와 홍바라 교수,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김주연 교수, 경인여대 최성임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월드뷰티핸즈 조현주 본부장, 조서연 국장, 윤종성 청년지원 봉사단장이 참여했다. 이날 촬영된 장수사진은 월드뷰티핸즈의 후원으로 액자로 제작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호개발NGO로 정부의 1365지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지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뷰티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대책, 결연아동 위한 '희망의 슈팅'

오는 9월 열릴 '기아대책 2018 HOPE CUP' 개최 기념

10개국 120명의 아동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행사 가 지난 5월 22일(토)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오는 9월 열리는 '2018 기아대책 HOPE CUP'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HOPE CUP, 희망의 슈팅' 이벤트를 개최했다.

2018 기아대책 HOPE CUP(호프컵)대회(장 안정환)은 전 세계 10개국 기아대책 결연아동 120명을 초청해 진행하는 행사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축구라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5개국(대한민국,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아메리카 2개국(멕시코, 볼리비아)이 참가한다. 기아대책은 국가별로 각 12명의 아동을 선발해 대한민국에 초청하며, 참가한 아동들은 축구대

회, 전국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 후원자와의 만남 등에 참여하게 된다.

22일 열린 '희망의 슈팅' 이벤트는 △희망을 GET! 하라! △HOPE CUP 희망의 그라운드 △HOPEplace이 되어 주세요 세 가지 참여코너로 구성됐다. 시민들은 미션과 선물이 들어 있는 캡슐을 뽑고, 10개국 결연아동 캐릭터와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축구공, 캐릭터인형, 미니선풍기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졌다. 이벤트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2016년 기아대책 희망월드컵은 올해 'HOPE CUP'으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처음 만나는 희망, Hello HOPE'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오는 9월 10일(예정) 개최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약 3주간 진행된다.



백석대 외국인 학생들 전통성년례 체험

"신기해...책임감 갖게 하는 것 같아" 소감

5월 21일 성년의 날을 앞두고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가 지난 5월 17일(목) 외국인 학생 대상 '전통 성년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올해 스무 살이 된 외국인 학생 20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행해온 전통적 성년식을 체험해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일깨워주고 사회 속에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성년식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은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 남자는 도포와 유건, 여자는 한복과 화관을 착용하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

손님'을 모셔 상견례, 삼가례, 초례, 성년선언까지 체험했다.

이날 전통 성년례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한국어연수생 레퀴하이 씨(Le Quoc Huy, 남 20)는 "베트남에는 없는 성년의 날을 한국에서 체험해보니 신기하다"며 "처음엔 마냥 재밌지만 했는데 행사 분위기가 스무살이 되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성 국제교류처장은 "우리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한국의 맛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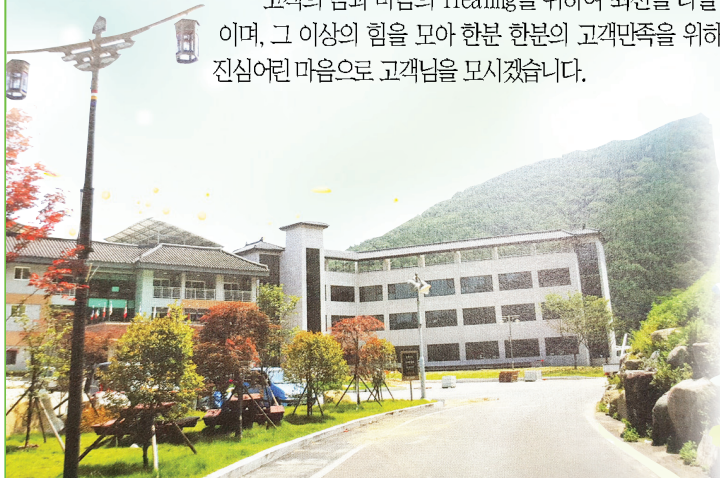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정책캠페인 진행

투표권 없는 아동 대신해 관련 의견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오는 6월 13일(수)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아동권리정책제안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방선거를 맞아 각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을 이해하고, ‘우리동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동의 4대 권리를 설명하고, 굿네이버스가 조사한 지역별 아동권리지수를 소개해 지역별로 아동권리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역별로 아동권리를 더욱 잘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선거 이후 각 지역에서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인천, 강원, 대전, 전북 등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캠페인에서 각

지역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 및 시설 등에 대해 아동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 받았으며, 6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페이지(campaign.happybeannaver.com/childvoice2018)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에는 신한카드의 사회공헌 브랜드인 신한카드 아름인과 조선일보의 공익채선인 더나은미래가 함께 한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기부할 수 있는 해피빈 콩이 지급되며, 참여 건당 300원이 매칭 기부된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들의 경우 투표권이 없다보니 아무래도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들도 좀 더 많은 이들이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전도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 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3년 3월에 구세군 김해교회로 전교 와서 성도가 몇 없던 터라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를 만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 다. 가장 먼저 교재를 구입 하였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였지만 하루 1시간 기도과 말씀 강조하였습니다. 가족세트전도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딸도 CD를 구입해서 차안에 꽂아 두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현장 전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진료 후 원장님게 이 병원을 잘 운영해 가실 수 있도록 축복기도를 해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며 눈을 감으셨고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저를 부르시더니 병원과 저에 결연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후에는 매달 주유비 10만원씩을 보내 주시면서 65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시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기는테 영양제 주시기를 무료로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식당 사장에게 가족세트전도를 한 후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 다. 구세군 김해교회에 무엇을 하나 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전과 리모델링 계획 한주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이전계획이 있다고 이야기 했더니 단번에 건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LED간판, 유리창, 현관, 예배당 입구, 유리 선팅까지 총 24만원에 지불해 주었습니다.

좁고 협소한 25평 남짓 되던 예배당에서 42평의 건물을 구하게 되어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

서 이 모든 것들을 전도를 통해서 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전직 목사 목사님, 전직 전기 목사님들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 10곳의 미지림교회들을 리모델링해 주신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전도하는 목사님들인데 그동안 숨겨 놓으셨고 리모델링이라고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숨겨져 있던 재능들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해 관계된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전도가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리모델링과 사택이전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셨고 필요한 재정만을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세트전도를 하면서 요 1:12 말씀을 앞세워 주님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해 주면서 전도하는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전도이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7년 구세군 정책에 따른 사상이 있었는데 전도하여 미지림교회에서 2등을 했고 1,0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를 만나 가족세트전도도 도전을 받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도했을 뿐인데 놀라운 열매들을 보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구세군 김해교회 김효영,채미숙사관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

자살고위험군 1순위인 자살유가족의 일상복귀 지원

한국생명의전화(이사장 이성화)가 생명보합사회 공헌재단과 함께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실시한다.

‘자살유가족 힐링캠프’는 한국생명의전화의 상담 및 자조모임에 참여해온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어온 치유 프로그램이다.

약 30여 명의 유가족과 유자녀들이 1박2일간의 캠프를 통해 상담과 나눔, 우울감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등 다양한 힐링,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온라인 공익 캠페인은 생명보합재단 블로그에 소개된 자살유가족 개인소설의 인터뷰 스토리를 읽고 댓글 또는 스크랩, 공유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면 생명보합재단이 한국생명의전화에 총 1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댓글은 한 개당 200원, 스크랩 또는 공유는 한 건



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092명으로, 이로 인해 7만8000여 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상실감,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충분히 슬퍼하거나 위로 받을 기회를 잃은 채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자살고위험군 1순위에 속하는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자살유가족 72명을 심층인터뷰 한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했으며, 2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해 자살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관리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자살유가족들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가족 힐링캠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참여 방법은 생명보합재단 블로그(<https://bit.ly/2rlT4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람원신학교 2018년 계절학기 종강세미나

‘가야국에 복음의 씨를 뿌린 도마의 행적’ 김철수 박사 특강



美감람원신학교(OLIVET MISSION SEMINARY) 총장 윤 사무엘 박사) 2018년 계절학기 종강세미나가 지난 5월 21일(월)~23일(수)까지 2박3일 동안 전라함평에 소재한 미술로몬대학교 한국분교(학장: 김철수 박사)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박사과정 수료자 10명과 총장 윤 사무엘 박사, 노양호 교수 송인성 교수, 이종훈 교수, 김인자 교수, 이호희 교수의 강의와 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 김철수 박사의 ‘사도도마의 중매로 이루어진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의 결혼’에 대한 고대기독교 역사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제2회 함평나비축제현장을 견학하고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야국지사 김철선생 기념관을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과 해방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을 바쳐 구국의 혼을 불살랐던 애국지사들의 치열한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역사의 현장을 탐사했다.

한편 저녁시간에는 경북 경산의 베테스다교회의 담임목사인 성경국 목사의 목회간증과 함께 치유사역을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체험하는 시간도 가져 현장감 있는 세미나로 은혜로운 일정을 가졌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체험담

안산거주 김OO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풍치**를 비롯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총회주일’ - ‘교단역량 결집’

5월 20일(주일) 전국서 헌신 다짐

제5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주일(5월 20일) 교단 산하 전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찬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총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했다.

특히 총회장 김영민 목사는 “총회가 정한 매년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켜 우리가 소속한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신의성실을 무기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헌신을 당부했다.

전국교회에서 일제히 지켜진 총회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단 산

하 전 지방회와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통합을 알린 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안정적인 발전을 다져가고 있으며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뽑고 정책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판이 되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주일 총회주일이 총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총회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믿는

다. 이제 전국교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 우리 교단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결집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헌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한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 주기를 교단 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교회와 교단의 부흥 위해 기도로 헌신

전국사모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에 윤금자 사모 선임



신임 사모회장
윤금자 사모

전국사모연합회(회장 한정은 사모는 지난 5월 21일(월) 오후 2시 은혜와 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교단 정기총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은 회원들은 회의에 앞서 총무 김귀순 사모의 찬양인도, 고분 최

해선 사모의 특별찬양, 부서기 김세희 사모의 회원점령, 회장 한정은 사모의 개회선언, 수석부회장 윤금자 사모의 개회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보고에서는 총무 김귀순 사모의 총무보고, 재무 김숙향 사모의 회계수입보고, 회계결산보고, 감사,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의 회계감사보고 후 회장 한정은 사모 주재 하에 임원진을 개설했다.

이번에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분 최해선 김양숙 증경회장 김영란 차장에 신동신 감사 차추련 직전회장 한정은 회장 윤금자 수석부회장 이정화 1부회장 김귀순 2부회장 이은숙 총무 신명희 부총무 서수영 서기 이정희 부서기전희진 회계 김세희 부회계 조순자 재무 김숙향



직전 사모회장
한정은 사모



제8차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신임원진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 出産, 고령화 社會의 최대 관심 有望사업】

각 교회 미혼 남, 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의 심각한 교회재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결혼114와 함께 비즈니스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국 지사를 모집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및 교회 중제직분들을 전국지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4차産業革命 정보共有사업

1. SNS, 블로그 제작 支援
2. 매칭 本社 지원
3. 營業 및 商談 지원
4. 收入 年 4,000만원이상
5. 지역獨占 營業권부여
6. 新 사업기회 제공(여행업)

■ 결혼회원 모집

1. 등록비 年 54만원 最低비용
2. 基督教人 회원 多數
3. 전문직, 僑民회원 多數
4.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업
5. 年 3회 결혼미팅파티 招請
6. 全國的 회원 多數

■ 결혼114와 他社의 서비스分析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54만원	5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이슬람과 힌두 문화권 선교전략 변화 절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세계지역연구소 포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소장 정홍호 교수)가 지난 5월 21일(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열고 이슬람 문화권과 힌두 문화권을 향한 선교전략을 나눴다.

이날 포럼은 학술논문 발표와 선교사례 발표로 진행됐으며, 백석대 정훈태 교수가 '신 냉전 시대 중동 이슬람 갈등상황의 선교적 함의'를 주제로, ACTS 김한성 교수가 '힌두권 반개종법의 환경 속에서의 선교'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불어권선교연구원과 아이티선교연구원의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중동 이슬람을 향한 선교적 함의에 대해 발제한 정훈태 교수는 중동의 전통문화와 종교, 영토 분쟁, 민주화운동 등을 소개하며 이해를 증진시켰다.

특히 이슬람의 영성문화 인식과 복음의 적용에 대해 주목한 장 교수는 "무슬림사회에서 일리가 잡힌 신이며 최고의 통치자라고 믿는 유일 신앙을 바탕으로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전도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훌륭한 예언자라고만 보고 있기에 복음전도자들은 이들에 대한 명확한 종교적 신학적 형태를 관찰하면서, 이들을 미래지향적 영적 리더십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면서 "무슬림들은 종말의 때 곧 내세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그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중동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구조적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냉전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시기에서는 개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

장 교수는 "폭력과 여성억압을 담은 꾸란은 현대사회에서 보면 오류투성이다. 현재보다 내세를 중시하는 태도가 자살테러도 서슴없이 만들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중동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여

성인권신장 등을 도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동의 복음화를 소망한다면 신학적 틀과 전통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며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려 한다면 먼저 '구조적 변화'와 '지역자들의 자기변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 변화가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오해와 반감, 더 나아가 더 깊은 증오의 골이 존재한다. 중동의 문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골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서방과 러시아가 무력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중동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동 외의 국가들은 역사와 종교의 중요성, 부족사회의 구조, 하나님 대 알라 등 수많은 많은 부분들을 통찰력과 뛰어난 감각으로 살펴보면 서양인 실타래를 풀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교수는 "서구와 기독교계는 이슬람이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보다 설득력 있는 선교적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며 "중동 복음화는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지정학적, 종교적, 국제정치관계를 비롯한 문화적 다원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힌두권에서의 선교방안을 모색한 김한성 교수는 인도 8개주의 반개종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반개종법이 제정된 배경과 문제를, 가능한 선교적 대응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타문화권 지역자들이 힌두 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타문화권 지역자들이 자신의 지역 방법들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선교사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한 선교적 대응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적 생활 방식은 카스트 제도와 차이가 커서 힌두 교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상하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의 무력통치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라며 "일제 강점의 역사적 경험은 힌두 교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힌두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을 개선하는데 크게 유익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문화 전통을 인도 내팔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와 내팔에서 지역할 때 개종은 신념, 행동, 소속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성경과 선교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도와 내팔의 반개종법들은 힌두교인들이 과거에 서구의 식민지였을 때 경험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힌두교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민원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법적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개최한 세계지역연구소는 세계 각 지역 연구를 위해 신학대학교와 한국 및 해외 한인교회를 연결하는 신학협동의 개념으로서 한국에 올바른 선교 정책 및 이에 따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 설

제67차 총회에 거는 기대

제67차 정기총회가 5월 21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되어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이울터 66회기 총회 임원 제위의 헌신적인 교단발전 및 교단회합 노력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 임원선출과 함께 지난 한 회기 동안의 교단의 제반 행정과 선교, 목회 실천, 교세 현황 등에 관해 총 점검을 했다.

사랑과 믿음으로 특별한 형제애로 뭉친 우리 교단은 한국의 성경적인 교단의 중심교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자유주의·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교계에 곳곳에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어 성도들이 심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목회와 선교 현장이다.

오늘날 온갖 신학적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성경중심주의'라는 한 개념으로 우리는 신학적 노선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켜 가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을 수 있어도 성경

을 휘방하는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막 3:28, 29).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한국교회를 혼잡케 하는 것은 성경을 휘방하는 행위인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니 교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노력해 보지만 정작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부흥만 하면 된다는 자세로 임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교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 교회에도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총회 성원 모두가 한 결 같이 마음을 모으고 당면한 한국교회의 병통을 말끔히 치유할 수 있는 새 헌의 결집을 이룩하고, 새로운 임원 선임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한 사역자들이 되어주길 바라 는 마음 간절하다.

미·북 정상회담 보다 남·북 진전이 앞서면 안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포기' 선언 직후에 김정은의 긴급 요청으로 남·북 정상간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연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된다. 마음이 앞서서 결핍하면 분을 걸어 잡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대가 말을 걸어온다고 다 내어 주려는 듯한 모양으로 달려드는 것은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많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처분하야 처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미·북 협상이 종대 국면에 접어들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도가 미·북 협상을 앞서가면 안 된다. 북핵 완전 폐기(CVID)를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1일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고, 군사당국자 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도 합의했다. 체육회담도 곧 열릴 전망이다. 북핵

문제가 다 해결된 듯 서두르는 모습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미·북 회담을 잘 지켜보고 선(先)북핵 해결, 후(後)남북관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도 집착하고 있는 듯하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후 13일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유엔군사령부 존립 근거를 없애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명분도 약화시키게 된다.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평화수역·비무장지대(DMZ) 중화기 철수 등을 추진할 경우, 한국군의 일방적 무장해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 인기가 높아졌다', '조·미 정상회담'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과유불급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옥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뱉어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담임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일시 2018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104
교회 : 031)543-4727

초·대·의·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과 증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6. 2

총회장 임웅재 목사

*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